

교사 역량 강화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전북도교육청, 진로선택 과목·교양 교과목 등 역량 강화 연구 추진... 학생 수요 반영 교육과정 편성 기반 마련

전북도교육청이 교사역량 강화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학생들의 과목선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 대상으로 진로 선택 교과 및 교양 교과목 지도 역량 강화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대 교육연수원, 전북대 산학협력지원단이 함께 참여해 연구과정을 공동 설계하고 보내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과정별 2일씩의 연수를 진행한다. 지난 7월 27~28일은 전북대 산학협력지원단에서 창의경영, 지식재산 일반 과목의 교사 연수를 운영했으며, 8월 4~5일은 심화국어, 영미문

학읽기, 9~10일은 심리학, 교육학을 전주대 교육연수원에서 비숙박 형태로 실시한다. 개설 과목당 참가 인원은 20명 이내고, 심리학 과목은 두개 반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의 교사 전문성 강화 연구 지원이 매우 중요

하며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사의 다과목 지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연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대학 내 교원연수기관들이 교사들의 재교육 기관으로 참여해 고교학점제 대비 다양한 분야의 교사 연수가 활성화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교 3학년 학생 대상 모의면접.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고교생 모의 면접 '호응'

면접 후 입학사정관 피드백 통해 대비기회 제공

전북대학교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초청 모의면접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3일 전북대에 따르면 도내 고3 수험생 68명과 전북대 교수·취업입학사정관 및 전입입학사정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고교생 초청 모의면접'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육성사업 JBNU 진로진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모의면접은 전북대가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고교·대학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평가 등 단계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면접평가는 전입교수, 교수위원, 입학사정관, 전입입학사정관이 3인 1조의 면접위원으로 구성돼 학생 1

인당 10분 내외로 평가가 이뤄진다. 또 올해부터 대학에서 출제하는 면접문항을 압축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면접은 실제 면접평가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면접 결과를 학생들에게 피드백 해줌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한편, 전북대는 코로나19의 3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면접 장소를 2곳으로 분리를 밀접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방역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진행했다. 주상현 입학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입시 진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생 및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의면접을 통해 고3 수험생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연계·협력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전북독립영화협회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3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연계·협력의 골자로 전라북도독립영화협회(이사장 박영환)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라북도 권역 내 미디어 분야 평생교육 사업 공동 기획 및 수행 ▲미디어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미디어교육 강좌 설계 ▲전라북도 권역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영화사회교육 사업 공동 기획 ▲세미나, 특강 등을 통한 최신 기술 등 정보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동승 학장은 "우리 지역에서 독립영화의 제작 및 상영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영상문화의 기틀을 세우고 있

는 전북독립영화협회의 협력을 통해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이 미디어 교육 및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 평생교육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은 2019년부터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전북지역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 특성화고(구 실업계고) 출신 재직자만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능 성적이 필요 없는 특별 입학 전형을 전면 실시함으로써 전북지역 직장인들이 정규대학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3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연계·협력의 골자로 전라북도독립영화협회(이사장 박영환)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부터 수업권 보장

전주교대, 2학기 학사 운영계획 거리두기와 연동 수업방식 적용 시험은 비대면 방식도 선택으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교육대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연동한 수업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3단계에서는 학년별 교과 등교(대면)를, 4단계는 비대면 수업(원격)으로 진행한다. 등교 인원을 1/2로 조정해 2개 학년씩 등교한다. 우선 8월 23일부터 1·4학년이 대면수업을, 2·3학년이 재택수업을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의심증상 또는 격리료

대면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평가 불이익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또 수업의 질을 확보하고자 외부 동영상 전적으로 활용한 강의나, 단순 강의자료 배포 및 과제 제출로만 이뤄지는 수업은 없도록 했다. 시험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 재량으로 비대면 평가도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우영 총장은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심사숙고해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수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인 학사 관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 동참

도교육청 전 직원 모금 성금 485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에 전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485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대국민 나눔 활동이다. 특히 이번 나눔 캠페인에는 도교육청운전직연합회, 도의회사무처 파견직원들까지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돌봄, 2030세대 취업비, 청년층의 취업과 진로문제, 위기 가정 생계비, 취약계층 주거와 의료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면서 "십시일반 모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북대, 지역아동센터에 코딩 교육기부

관련 기업 '허니' 참여·10월까지 20차 교육

전북대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센터장 박병기)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인 (주)허니(대표 최상희)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교육 기부는 광주 새싹지역아동센터(센터장 최정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적 사고력 및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하게 하는 풀디곤에 이드를 통한 코딩 프로그램을 8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차시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미래직업을 파악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VR코딩을 실현하는 가운데 블록코딩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년제 지역아동센터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최상희 대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데, 교육기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표현력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큰 마음을 다해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기부 지역센터 활성화 방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